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878~1879년 천주교 박해 체험자 이 마르타의 회고를 다시 읽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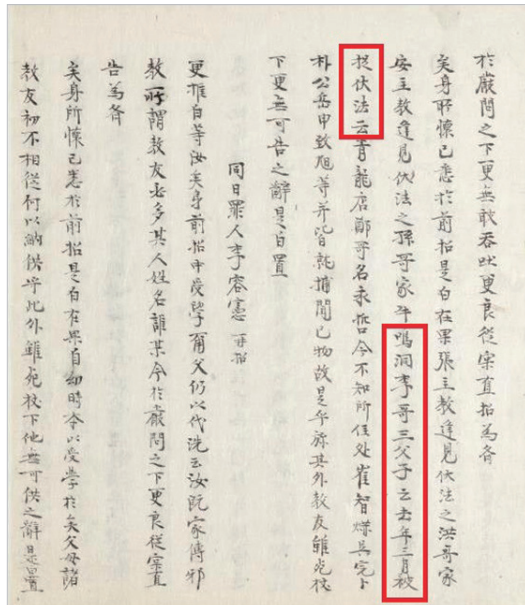
- 1879년 공주에서 체포된 드게트 신부와 신자들[이 마르타 포함]에 대한 내용 소개 -

필자는 저번 호에 이전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회고(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1878년 리델 주교의 체포와 석방(중국 추방), 1879년 드게트 신부의 체포와 석방(중국 추방)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옥중에서 치명(致命, 순교)한 신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구술 자료는 1935년 당시 79세[1857년생]였던 ‘이 말다’[마르타의 구술[아들 김중묵이 필기]을 수록한 『박해의 전반생(前半生)을 회고함』[『가톨릭청년』 28호(1935년 9월), 82~94 쪽]입니다.

1878년 리델 주교 체포와 연관되어 용인 소우리[현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우명동]에서 이 마르타의 부친인 이석교(李錫敎) 요한 사도와 이 마르타의 오빠들인 이성일 토마스, 이성현 레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치명했는데, 이들은 『우포청등록(右捕廳騰錄)』에 나오는 이석교(李石敎), 이선일(李善一), 이덕순(李德純)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이석교 3부자의 옥중 치명은 1879년 치명자 ‘하느님의 종’ 이병교(李秉敎, 레오)의 『우포청등록』 진술, 블랑 주교와 드게트 신부의 서한에서도 확인됩니다.



드게트 (Deguette, 1848-1889) 최(崔) 신부



이석교 삼부자가 옥중 치명했다는 이병교의 진술 『우포청등록』(29책 4b)

이번 호에서는 위의 내용에 이어 1878년 체포된 이 마르타의 이종사촌과 그 남편에 대한 내용, 1879년 이 마르타 본인이 드게트 신부와 함께 체포된 후 여신자들이 공주 감옥에 갇혀 옥살이하다가 풀려나오는 과정을 정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78년 음력 1월 안성에서 체포된 이 마르타의 이종사촌과 그 남편 - 이병교의 딸과 사위

이 마르타의 회고[『가톨릭청년』 28, 83~84쪽]에 의하면, 1878년 음력 1월 용인 소우리[우명동]에서 이 마르타 가족이 체포될 때 큰 오빠인 이성일은 이종사촌누이의 혼인식에 참석하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일은 얼마 후 붙잡혔고, 포도청으로 끌려가 그 부친·동생과 함께 심문을 받고 옥중 치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종사촌누이는 이병교[이 마르타의 이모부의 딸이자 이경빈 요한[드게트 신부의 복사]의 누이동생으로 안성 땅에서 김씨[포천 금수정(金水亭) 김씨]와 1877년 음력 12월에 혼인했습니다. ‘금수정 김씨’는 영평(永平) 지역[현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일대]에 자리를 잡은 구(舊) 안동김씨를 가리키며, ‘하느님의 종’ 김면호 토마스의 일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영평의 김씨 집안에 대해서는 이석원, 「1839~1868년 3대 순교자 김익례·김면호 가족의 행적과 가계도」, 『교회사연구』 56, 2020 참조]

이 마르타의 회고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지만, 리텔 주교의 ‘옥중수기’에 이[병교] 레오의 딸(18세)과 그 남편이 포도청 옥에 갇혔다고 나옵니다.[A-MEP, Vol.580, f.422 :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 살림, 2008, 68~69쪽] 또한, 『우포청등록』에는 이병교의 딸과 사위, 사위의 모친, 사위의 오촌숙모의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르타의 이종사촌 이큰아기와 그 남편 김경학의 진술 - 『우포청등록』(27책 7a~7b)

안성 계촌(季村, 현재 안성시 안성2동에 속한 계동)에서 체포되어 1878년 1월 27일(양력 2월 28일)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이큰아기[李女大阿只] 안나(19세)와 김경학(金景學) 요한(25세) 부부가 바로 ‘이양이(李良伊) 즉 이병교 레오의 딸과 사위입니다. 김경학의 모친으로 이병교의 안사돈인 이어린년[李女於仁連] 안나(48세)와 김경학의 오촌숙모인 이아기[李阿只](38세)도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김경학은 장인[妻父]인 ‘이양이’에게 천주교를 배웠고 1877년 8월경 장인의 집에서 드게트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병교의 딸 이큰아기도 어릴 때 부친에게 천주교를 배웠고 1877년 10월경에 드게트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린년은 이전에 이병교에게 천주교를 배우고 이병교 집에서 다블뤼 주교[1866년 치명]를 만나 세례를 받았으며, 1877년 8월경 이병교 집에서 드게트 신부를 만나 고해성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야기는 조카인 김경학에게 1877년 8월경 천주교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1866년 천주교 박해 전후로 이병교가 ‘금수정’ 구 안동 김씨 집안에 천주교를 전했으며, 이를 인연으로 사돈까지 맺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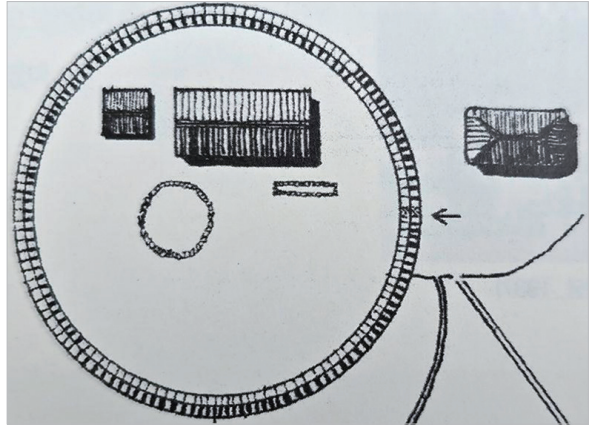
이 마르타가 1년간 감금되어 있다가 도망치고, 드게트 신부와 함께 공주 공수원에 거주하다

1878년 음력 1월 용인 소우리[우명동]에서 이 마르타 가족이 체포되었을 때 이석교 삼부자는 서울로 끌려갔고, 집과 재산은 몰수당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이웃이나 친척을 찾아갔으나 후환을 두려워한 이들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 마르타는 모친과 올케 두 사람과 헤어져 여동생과 이 막달레나[이경빈의 딸]와 함께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용인현 이방(吏房)

이 보낸 관졸에게 혼자만 붙잡혔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바로 치명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방과 그 부인은 이 마르타를 자기 집에 두고 1년 동안 잘 돌봐주면서 어떠한 심문이나 형벌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체포가 아닌 사적인 감금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이 마르타는 이방 부부가 자신을 ‘보호’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모친과 연락이 닿은 이 마르타는 1879년 2월 24일 밤에 이방 집을 빠져나와 양성군[안성군의 오기로 보임] 명당리[현재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 점촌 교우촌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목천 먹방리[현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석천리] 교우촌을 갔다가 드게트 신부와 그 복사 이경빈 요한을 만나 공주 공수원[公西院, 현재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와 청양군 목면 송암리 사이에 있는 마을로 추정]으로 신부 일행과 함께 옮겨갔습니다.【『가톨릭청년』 28, 84~87쪽】



공주 향옥[감영 감옥] 예전 사진



공주 향옥 복원 추정도

[전거] '세종의 소리' <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13>

이 마르타가 드게트 신부와 같이 체포되어 공주 감옥에서 옥살이하다가 사면·석방되다

이 마르타의 회고에 의하면, 공수원에는 세 집이 있었는데 드게트 신부 집에는 복사 이경빈 가족[이 병교도 함께 거주]이 살았고, 한 집은 이 빈첸시오 가족, 또 한 집은 김 첨지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개가 짖기 시작하니까 드게트 신부가 이병교를 불러 포졸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했으나, 곧바로 포졸들이 달려들어 붙잡았습니다. 신자들이 있던 세 집이 모두 포교들의 습격을 받았고, 신부를 포함하여 18명[남성 6명, 여성·소년 1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주 감영을 끌려간 다음 신부와 남성 신자 6명[이 레오와 이 요한 부자, 이 빈첸시오의 자제, 김 첨지 부자, 혼배 관면을 청하러 온 신자(이름 모름)]은 서울로 압송되었고, 여성과 소년 신자들은 공주 감영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마르타가 언급한 이 레오 부자는 이병교와 이경빈을 가리키며, 후대의 증언에 의하면 이경빈은 서울로 올라가던 도중에 탈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병인치명사적』 6권 49~50쪽】 실제 포도청 심문 기록에는 ‘이경빈(李景彬)’의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포청등록』(29책 1b~7b) 1879년 4월 1일(양력 5월 21일)과 4월 4일(양력 5월 24일) 심문·진술 기록에는 이병교 외에 이용헌(李容憲) 이시도로(21세), 김덕빈(金德彬) 바오로(23세), 이학경(李學景) 토마스(61세)가 확인됩니다. 이용헌은 이 빈첸시오의 아들【『병인치명사적』 22권 20~22쪽. 부친 이 빈첸시오의 증언로 보이며, 김덕빈은 김 첨지의 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르타의 회고에 언급된 김 첨지는 압송 도중에 도망쳤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붓을 팔기 위해 공주 이병교 집에 왔다는 이학경은 혼배 관면을 청하러 온 이름 모를 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주 감옥에 갇힌 여성·소년 신자들은 이 마르타를 비롯하여 그의 이모(이병교의 체, 이병교의 며느리, 이병교의 손자손녀 남매, 이 빈첸시오의 모친과 부인, 이 빈첸시오의 숙모와 당질녀, 김 첨지의 딸, 다른 여성 신자 등 1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몇 명씩 나뉘어 감옥에 갇혔으며, 혹독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20세 초반의 이 마르타에게 ‘야수 같은’ 관졸들은 감옥에서 성추행하거나 심지어 강간까지 하려 했습니다. 1839년 당시 ‘성인’ 김효임·김효주 자매처럼 이 마르타는 신앙의 힘으로 야수 같은 관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후 공주 감영의 영장(營將) 유씨가 이병교 가족을 다른 관아로 옮겨 보호해 주었는데, 사실 유 영장은 이병교와 친밀했던 사이로 이병교의 부탁으로 그의 가족들을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이 마르타도 이병교 가족들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조정의 사면령이 내려지자 배교 없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마르타는 ‘왕세자(뒤의 순종)의 천연두가 무사히 나왔다’는 이유로 사면령이 내려졌다고 회고했지만, 사실은 헌종(憲宗)의 계비인 효정왕후 홍씨(孝定王后 洪氏, 1831~1904)가 50세가 되는 해를 맞아 사면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고종실록』 고종 17년(1880) 1월 1일 기사 1880년 1월 1일(양력 2월 10일)에 이 마르타, 그의 이모, 이종사촌 올케, 이종사촌(즉, 이병교의 아내, 며느리, 딸) 등 4명 여성이 함께 풀려나왔습니다. 처음에 함께 갇혔던 11명 중 7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마르타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가톨릭청년』 28, 87~91쪽.] 1880년 2월에 배교를 하지 않고 서울과 공주 감옥에서 신자들이 풀려났다는 것은 블랑 주교의 서한[A-MEP, Vol.580, f.767]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이 마르타의 회고에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이 마르타는 1878~1879년 선교사제와 신자들의 체포라는 역사적 사건 현장에 당사자로서 참여했고, 가족과 신자들의 체포와 치명, 자신의 옥중 생활과 석방 과정을 구체적으로 회고했습니다. 선교사제의 서한과 후대의 증언록, 관변 측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그의 회고(증언)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거나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보완해 주는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이 마르타와 그의 아들 김중묵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6호 원고 모집

- 투고 마감일 : 2025년 1월 31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심사를 거치는 정규 학술논문 이외에 보고서, 서평, 자료 소개[해제], 번역문 등 교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글과 자료도 『교회사학』에 신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 후원회원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24년에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원하시는 분과 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기존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